



제7회 무주산골영화제가 지난 5일 막을 올렸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산골영화제 현장.

“반딧불이 벗 삼아 영화소풍 가자”

무주산골영화제 개막
25개국 101편의 영화
공연&관객과의 만남 등

제7회 무주산골영화제(주최 무주산골영화제 조직위원회, 주관 무주산골영화제 집행위원회, (재)무주산골문화재단)가 지난 5일 막을 올렸다. 영화배우 박철민 씨와 김혜나 씨의 사회로 무주읍 등나무운동장에서 진행된 개막식에는 무주산골영화제 황인홍 조직위원장(무주군수)과 유기하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송하진 도지사, 김승환 교육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무주군의회 유승철 의장, 전주MBC 송기원 대표 등 내빈들이 참석했으며, 개막작 '불가사리' 합합 리부트 (feat. MC 메타)의 감독 김태용, 윤세영 감독과 올해 '넥스트 액터'의 주인공인 배우 박정민, 한국장편영화경쟁부분인 '창' 섹션의 심사위원 이동하(영화사 레드피터 대표), 장률(영화 군산: 거위를 노래하다 감독)과 영화평론가상 심사를 맡은 김병규 영화평론가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또 영화 '막다른 골목의 추억' 최현영 감독과 주연 배우 최수영, 타나카 슌스케, 《한겨레: 유관순 이야기》조민호 감독과 배우 김예은, 《형사

Duist》, 《M》을 연출한 이명세 감독이 참석했다. <뷰티풀 데이즈>, <아워 바다>, <준하의 행성> 등 제7회 무주산골영화제 상영작들의 감독과 출연 배우들이 참석했으며 김동원(《송환》 감독)과 양익준(배우겸 감독), 황승연(배우) 등 영화계 주요 인사들과 일반 관객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개막식을 빛냈다. 개막공연에서는 가수 양희은이 세대를 초월한 감동을 선사했다.

“모두가 기대하고 사랑하는 초록빛 낭만 휴양영화제, 달빛 별빛 반딧불이를 벗 삼아 떠나는 영화 소풍 길을 시작한다”는 황인홍 조직위원장(무주군수)의 개막선언 후 제7회 무주산골영화제 개막식 하이라이트 '불가사리' 합합 리부트 (feat. MC 메타)가 상영됐다.

'불가사리' 합합 리부트 (feat. MC 메타)는 고전영화와 현대음악의 콜라보라는 무주산골영화제만의 개막작 전통을 잇는 동시에 북한영화와 합합 음악의 파격적 만남이라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신상욱, 정건조 감독이 제작한 북한영화(1985년 / 96분)《불가사리》가 일자로 김태용 감독과 윤세영 감독이 공동 연출을 맡았으며, 한국 합합 1세대 뮤지션 MC 메타가 음악감독과 공연을 맡았다.

제7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오는 9일까지 무주읍 예체문화관과 산골영화관(반디·태권관),

등나무운동장, 자남공원, 덕유산국립공원, 향로산지자연휴양림, 무주전통생활체험관, 무주전통문화의 집 등 9개 상영관(25개국 101편의 영화 상영)을 중심으로 개최되며 한국영화장편영화 경쟁부문인 '창' 섹션에서는 동시대 최신 한국 독립영화를, '관' 섹션에서는 국내·외 최신 개봉작과 개봉 예정작, 고전영화, 다큐멘터리 등을, '락' 섹션에서는 영화와 라이브 연주(《무성영화》)를 즐길 수 있다.

'숲' 섹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낭만적인 야외상영장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는 덕유산국립공원 대집회장에서 보는 35mm영화관이 일품이다.

무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콘텐츠를 영화와 결합한 마을로 가는 영화관(향로산 자연휴양림) '길' 섹션에서는 별밤소풍(별자리 찾기+영화 상영)을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김필과 옥상달빛, 심센터, 김성수 모던 재즈 트리오, 타악연희회 아귀 등의 뮤지션들이 참여하는 산골콘서트를 비롯해 산골공방과 산골미술관, 산골책방, 산골소풍(반딧불이 신비탐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펼쳐질 예정이다. 관람료 없이 무료로 즐기는 제7회 무주산골영화제 관련 정보들은 홈페이지(www.mjff.or.kr)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유물 속에 숨겨진 소원 찾으러 떠나요”

전주대 박물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주대학교 박물관(관장 홍성덕)은 오는 11월까지 지역 청소년의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주기 위해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의 지원을 받아 전액 무료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전주대는 올해로 6년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유물 속 소원을 찾아서', '조선에서 온 편지', '고고학 체험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 4월부터 이미 도내 청소년 200여 명이 전주대를 방문해 우리나라 전통문화와 역사를 체험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전주 하기초등학교 학생들이 방문해 전통문양 예코백을 만들고 전시실

을 관람하며 유물 속에 담긴 전통문양의 의미를 알아보았다.

박현수 학예연구사는 “다양한 인문학 체험을 통해 청소년의 인문학적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문화의 중심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는 박물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박물관은 11월까지 '유물 속 소원을 찾아서'와 '조선에서 온 편지' 등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역사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문화관광재단, 예술인활용사업 본격 추진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 이하 재단)이 '2019 예술인활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술인활용사업'은 기업이나 기관에 예술인을 매칭해 기업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예술인은 새로운 직무를 경험토록 하는 프로젝트로, 지난해에는 시범운영을 통해 전주롯데백화점 다중이용공간에서 11명의 작가가 작품을 선보였으며 이로써 작품의 판매까지 이어지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 사업에는 1차 참여기업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전주롯데백화점이 선정됐고 심사를 거쳐 시각과 음악분야 10명의 예술인이 선정 매칭 됐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음악과 영상분야 예술인 5명과 CM송 홍보 동영상 제작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운영할 계획이며 제작한 영상은 9월 이후 대외 홍보용으로 활용 할 예정이다.

전주롯데백화점은 시각분야 예술인 5명의 작품을 백화점 내부에서 전시 운영 할 계획으로 백화점 내부에는 스포츠 지정해 전시공간으로 재구성 할 방침이다.

이병천 대표이사는 “예술인활용사업은 예술인에게 새로운 운영방식이라는 점에서 참여한 예술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지역에 많은 기업이 동참해 예술인과 기업의 협업 프로젝트가 하나의 브랜드로 탄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수탈의 아픈 역사와 많은 근대문화를 간직한 군산시가 최근 일제강점기 시절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군산 역사관 개관식을 가졌다.

‘역사와 문화가 생동하는 군산’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개관... 이달 말까지 무료 운영

수탈의 아픈 역사와 많은 근대문화를 간직한 군산시가 최근 일제강점기 시절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군산 역사관 개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임준 군산시장, 서동완 군산시의회 부의장,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주광순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진원 군산문화원장, 도·시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역사관 개관을 축하했다.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은 도시재생선도사업의 일환으로 동국사로 21(금광동)에 건립된 건물면적 1888.7㎡, 지상3층 건물로서 1.2층은 주차장, 3층은 전시실, 세미나실, 수장고, 사무실 등으로 되어 있으며, 올해 5월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대한역사연구소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다.

본 역사관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사회적

을 엿볼 수 있는 군산개항사, 군산비밀요람 등의 자료를 비롯하여 지도, 엽서, 사진 등 각종 희귀 유물들을 보관하고 있으며, 이 중 300여점의 유물이 10월31일까지 '수탈의 기억 군산'이라는 주제로 일반 관람객들에게 전시되어 도심 속 역사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이 개관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방문하여 역사와 문화가 생동하는 군산시로 거듭나길 바라며, 아울러 도시재생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역사관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역사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동절기에는 오후 5시)까지이고 매주 월요일은 휴관하며 시는 개관기념으로 6월말까지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